

## 2023 년 7 월 30 일 “여호수아(14) 개간하여 차지하라”(수 17:14-18)

오늘은 두 지파가 유업을 소유하는데 있어 어떤 태도와 적극성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.

### [1]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

현재 분배 상황을 보면,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, 갓, 므낫세 반 지파가, 요단강 서편에는 유다 지파가 정착했습니다. 오늘 본문은 다음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정착할 유업의 땅을 받는 이야기입니다(16~17 장).

가나안 1 세대(광야 2 세대)의 인구조사 결과(민 26 장), 장정(남자) 기준으로 므낫세(5 만명 대)와 에브라임(3 만명 대)은 타지파보다 크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할당된 땅이 작다고 불평을 합니다.

### [2] 대화와 새 출발

v.14 ‘우리는 큰 무리인데 한 몫은 작다’

v.15 여호수아: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라

v.16 ‘그래도 여전히 땅은 좁고 원주민들은 철 병거를 가지고 있어 싸울 수 없다’

v.17 여호수아: 당신들은 큰 무리이니 한 몫만 가질 일이 아니다(!?)

여기서 여호수아의 좋은 대화의 방식을 봅니다. 상대가 불합리한 말을 할지라도 일단 마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. 이 때 감정의 상함 없이 소통이 더 진전될 수 있습니다.

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 있어서 상대의 어떤 말도 그 입장에서 들어주는 것은 배려이며 사랑의 표현입니다. 아이들과 대화에서도 필요합니다. 일단 그를 받아준다는 의미에서 그의 말을 validate 해 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나면 대화의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

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.

v.18 ‘산간지방을 개간해서 모두 차지하고, 그들에게 철 병거가 있지만 당신들은 강하다.’

사실 이들에게 더 줄 몫은 없었습니다. 유업의 땅은 주신 반경 안에서 스스로 구하는 태도와 노력으로 개간하여 더욱 쓸모 있게 만들고, 장애물 또한 하나님 뜻 안에서 제압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들은 생소한 땅을 취한다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.

이런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들을 탓하지 않고 끝까지 대화로 설득합니다. ‘못해요, 안 돼요, 부족해요’라는 이슈를 가진 공주병 지파들을 잘 이끄는 모습입니다. 그 결과 두 지파는 회복되어 유업 소유의 행보를 이어 나갑니다.

### [3] 서로 다른 방식의 유업 쟁취

갈렙과(15 장) 대조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은 유업에 대한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. 유업으로 받는 땅은 모두 다릅니다. 우리 모두도 직업, 가정, 교회를 유업으로 받지만, 그 특징과 성격은 모두 다릅니다. 따라서 주어진 유업 속에서 애써 개간하는 지혜와 열정이 필요합니다.

어쩌면 대부분 사람들은 갈렙(유다 지파)보다는 두 지파의 모습에 가깝습니다. 그러나 해소의 길은 있습니다.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지혜와 힘을 얻어 유업의 지경을 개간하는 씨름을 할 수 있습니다. 주님이 주신 삶은 그 자체로 완벽하지 않습니다. 개간하여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.

갈렙과 유다 지파의 결연한 호기도 좋지만, 처음엔 문제점을 보였으나 리더와 대화를 통해 방향성을 잡고 유업의 몫을 차지하는 두 지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업자일 것입니다.

나와 공동체의 유업의 반경 안에서 잘 못할 것 같고, 부족한 게 많고, 두려움이 있어도 공동체적 협력 속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. 그 속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며 유업을 개간하여 차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

### <나눔의 질문>

1. 본문의 두 지파와 지난 주 갈렙이 가진 유업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세요. 나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?
2. 여호수아와 두 지파가 나눈 대화의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떤 점을 닮았으며,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겠습니까? 이 대화가 영적 생활의 어떤 면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?